



2012년 12월 20일

투자전략 Daily

투자전략 | 노근환 ☎ 3276-6226
시 황 | 박소연 ☎ 3276-6176
글로벌전략 | 박중제 ☎ 3276-6560
기술적분석 | 김철중 ☎ 3276-6247
계량/파생 | 안 혁 ☎ 3276-6272
경제분석 | 전민규 ☎ 3276-6229
이머징마켓 | 윤향진 ☎ 3276-6280
채권분석 | 이정범 ☎ 3276-6191
크 레 디트 | 김기명 ☎ 3276-6206



• 투자전략

제18대 대통령 선거 : 영향과 전망

• 이머징마켓 동향

부동산규제 우려로 중국증시 혼조세

• 전일 시장 동향과 특징주

• KIS 투자유망종목

단기 유망종목: 대양전기공업 외 5종목

중장기 유망종목: LS 외 5종목

• 산업/기업분석

디스플레이, 보험, 은행, 두산인프라코어, 고려아연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선물 옵션 시장 동향

• 증시 캘린더

주요 증시 지표 및 주체별 거래 동향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12/11(화)	12/12(수)	12/13(목)	12/14(금)	12/17(월)	12/18(화)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1,964.62	1,975.44	2,002.77	1,995.04	1,983.07	1,993.09
	등락폭	7.20	10.82	27.33	-7.73	-11.97	10.02
	등락종목	상승(상한)	385(3)	467(8)	517(9)	381(5)	310(4)
		하락(하한)	417(6)	330(4)	282(0)	410(5)	501(3)
	ADR	88.61	91.74	98.99	102.93	96.06	94.87
	이격도	10 일	101.10	101.33	102.38	101.66	100.83
		20 일	102.45	102.79	103.86	103.10	102.20
	투자심리	60	70	70	70	60	70
	거래량 (백만 주)	400	453	414	346	362	448
	거래대금 (십억 원)	4,427	4,561	5,894	4,250	4,204	4,558
코스닥	코스닥지수	481.59	485.33	490.15	491.65	485.48	483.19
	등락폭	-8.00	3.74	4.82	1.50	-6.17	-2.29
	등락종목	상승(상한)	306(3)	497(5)	635(9)	514(6)	330(14)
		하락(하한)	622(16)	408(5)	280(2)	390(2)	597(5)
	ADR	79.51	83.81	91.68	98.23	90.35	87.00
	이격도	10 일	97.54	98.48	99.59	100.06	99.07
		20 일	97.44	98.37	99.39	99.60	98.43
	투자심리	60	60	60	60	60	50
	거래량 (백만 주)	346	323	286	332	310	318
	거래대금 (십억 원)	1,596	1,444	1,323	1,403	1,328	1,452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증권)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종기금)	기 타
유가증권	매수	1,848.9	1,527.5	1,154.5	321.2	147.4	300.5	61.7	28.4	214.1	59.4
	매도	2,106.2	1,302.3	1,126.7	214.1	163.8	354.2	37.4	37.7	226.3	55.2
	순매수	-257.3	225.3	27.8	107.1	-16.3	-53.8	24.3	-9.4	-12.1	4.3
	12 월 누계	-2,037.9	2,610.5	-450.9	98.7	60.2	-401.8	14.5	-83.5	134.7	-121.7
	12 년 누계	-14,305.9	15,743.3	3,468.6	1,658.2	2,717.5	-5,246.3	97.5	415.3	3,394.4	-4,906.0
코스닥	매수	1,325.2	61.9	67.5	15.2	6.2	24.5	1.6	3.2	14.7	18.1
	매도	1,309.4	58.8	89.1	12.3	13.1	37.1	3.9	4.3	16.3	15.4
	순매수	15.8	3.1	-21.6	2.9	-6.9	-12.6	-2.2	-1.1	-1.6	2.7
	12 월 누계	114.7	-30.8	-110.8	-9.6	-0.8	-102.2	-24.0	-6.9	21.6	26.9
	12 년 누계	1,312.1	11.9	-512.2	37.7	79.2	-649.8	-295.8	-40.7	339.4	-811.8

제18대 대통령 선거 : 영향과 전망

12월 월간 밴드	1,870-2,030pt
2013년 연간 밴드	1,780-2,400pt
12MF PER	9.4배
12MF PBR	1.06배
Yield Gap	7.7%P

- ▶ 제 18대 대통령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당선
- ▶ 소득 불균형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은 상황, 점진적이고 완화된 방향이 될 것
- ▶ 섹터별 애널리스트의 전망 및 의견 종합

■ 제18대 대통령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당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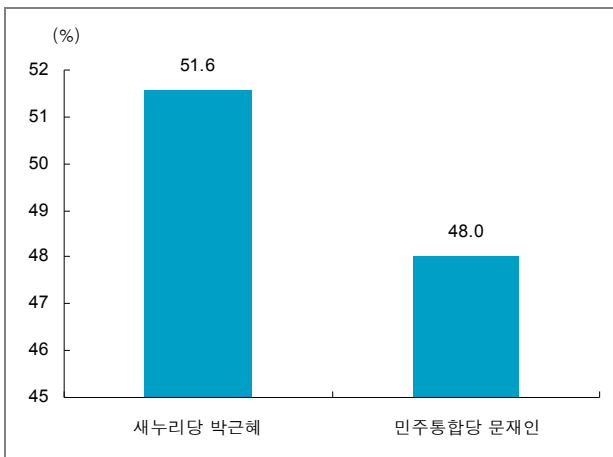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제18대 대통령에 당선

2012년 12월 19일 제 18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다. 전국 개표 78%가 진행된 밤 11시 30분 현재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51.6%의 득표율을 기록,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 약 3.5%p 앞서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다.

이번 선거의 화두는 처음부터 끝까지 ‘경제 민주화’였고 우리는 이에 대해 여러 차례 자료를 통해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을 전달하였다.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양극화 해소 등 분배에 대한 요구가 커질 것이고 이에 대한 규제 및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겠지만, 새누리당이 국회 과반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급진적 성향의 정책이 현실화 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승리함으로써 주식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금산분리와 출자총액제 이슈도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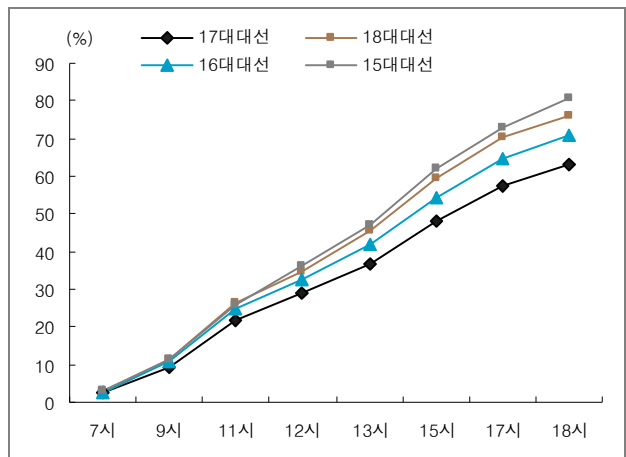
주요 외신들은 선거 결과를 놓고 ▲ 한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탄생했다고 전하면서 ▲ 이번 대선은 소득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개선 요구가 얼마나 강했는지를 잘 드러냈고 ▲ 새누리당의 재집권으로 대북 강경책은 일부 완화되겠지만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부담을 주는 요인 등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림 1] 제18대 대선 후보별 득표율 (밤 11시 30분 기준)



자료: 언론 보도, 한국투자증권

[그림 2] 18대 대선 투표율 75.8%로 상승



자료: 언론 보도, 한국투자증권

〈표 1〉 새누리당 박근혜 당선자의 경제 관련 공약 및 정책 입장

이슈	주요 내용
대북정책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 남북간 불신과 대결 국면을 벗어나 신뢰 관계 구축
경제정책	- 가계부채 : 시장 원칙 중시. 국민행복기금 18 조원을 조성해 일반 채무자는 50%, 기초수급자는 최대 70% 감면하는 프로그램을 제공 - 균형성장 :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과 내수 - 대부분 법과 제도를 정비해 실현할 것이므로 별도의 재원조달은 불필요 - 하우스 푸어 대책 : 집주인이 소유권을 유지한 채 주택지분 일부를 공공기관에 매각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는 지분 매각제도 제시
복지정책	- 한국형 복지, 생애주기형 맞춤형 복지 정책 - 고용복지: 일자리를 통해 소득을 창출하고 자아를 실현
일자리정책	- 일자리 창출 중심의 창조 경제 육성 - 정년 60세 법제화,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징벌적 금전 보상제 - 정보통신기술, 소프트웨어 산업 및 창업 집중 육성 - 성장률보다는 고용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
재정	급격한 증세 없이 재원 확보, 정부지출 구조조정 및 세입 증대
정책방향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추진. 그러나 개별기구 설립 추진에는 부정적
순환출자	- 신규 출자분만 규제 - 지배구조 개선 작업에 투입될 비용을 신성장동력 확보에 일자리 창출에 투입한다는 방침 -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 : 대기업 경영감시기능 제고
출중제	출중제 부활 반대, 공정거래법으로 보완
금산분리	-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 현행 15%에서 5%로 낮추되, 의결권 한도를 10%로 설정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매년 1%p 씩 낮춰 5%까지 줄인다는 계획 - 금융계열사 수나 자산규모에 따라 일정 요건 넘어서면 중간 금융지주회사 설립 의무화, 금융사 계열분리 - 금융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에만 시행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금융, 보험회사까지 확대할 방침 -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9%에서 4%로 낮춘다는 방침
상생/공정거래, 재벌개혁	- 부당 내부거래 및 일감몰아주기 금지 - 골목상권 보호,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또는 개선 - 횡령/배임에 대한 집행유예 방지, 대기업 총수 사면 제한

자료: 각 언론, 한국투자증권

■ 제18대 대통령 선거 : 영향과 전망

애널리스트 의견 : 소득 불균형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은 상황이라 개혁은 불가피. 그러나 점진적이고 완화된 방향을 점쳐

한국투자증권은 박근혜 후보 당선에 따른 업종별 영향과 이에 대한 애널리스트 의견을 수렴하였다.

전체적으로 ▲ 소득 불균형 및 분배 문제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은 만큼 이에 대한 이행 노력은 지속되었으나 ▲ 높은 강도의 개혁과 규제보다는 점진적이고 완화된 방향의 개혁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또한 당초 우려했던 출중제와 금산분리 등의 이슈에 대해서도 비교적 완만한 방향의 정책적 이동을 점쳤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의 표에 정리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당선시 섹터 영향			
섹터	인더스트리	관련된 공약 및 정책	애널리스트 의견
에너지	정유	- 에너지 공급/신재생에너지 보급 위한 에너지세제 개편 - 동북아 에너지그리드/울산 오일허브 구축 - 에너지 공급 안정화	- 에너지 가격 및 세제 개편이 유류세 인하 등으로 이어진다면 정유사의 가격 인하 압박 완화 기대 - 석유 트레이딩 사업 확대 가능
소재	철강/비철금속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화학	- 전기차 산업 육성	- 전기차 기술 발전으로 수요 증가시 LG 화학 등 관련 업체에 긍정적이나 즉각적인 효과는 미미
	건설	-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반대	- 계열사 물량 비중이 많은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의 경우 국내 수주가 예상대비 감소할 가능성 있음
	조선	- 부산을 선박금융의 특화도시로 만들 것 - 선박금융공사 설립 -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하되, 기존 순환출자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해소	- 조선소, 선박기자재업체들의 금융 지원에 긍정적 - 국가적 차원의 선박금융 지원은 국내 조선산업 수주 경쟁력에 큰 도움
	기계	- 안전을 전제로 한 원전유지 정책 - 풍력 산업 육성	- 풍력 및 신재생 업체들의 수혜 예상
	운송	- 동남권 신공항 추진 가능성 - 해양수산부 부활 추진	- 동남권 신공항 건설에 대한 의지가 그리 높지 않아 보여 시간을 두고 지켜보아야 함 - 해양수산부가 부활되면 해운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으나 세계적으로 업황이 어려운 만큼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일 것
경기소비재	자동차	-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 순환출자 금지	- SL, 만도 등 모비스에게 점유율을 잃어버리고 있는 부품업체에게 긍정적 - 기존 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검토 중이지만 통과될 가능성 낮아 - 만약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의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해야 할 경우 기아차가 보유하고 있는 모비스 지분 16.88%에 해당하는 비용 4.9조원이 소요되며, 모비스를 지주회사로 하는 지배구조 형태가 가장 유력해 보임
	교육서비스	- 교과서 완결학습 체제 구축 - 온종일 학교 운영 등 초등학교 보육 강화 - 중학교 자유학교제 도입, 고교 무상 교육 - 대학 반값 등록금 및 학자금 대출 이자율 대폭 축소	-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취지는 민주당합당과 같으나 대학 입시 제도와 고교 서열화 등에 대한 직접적이고 민감한 부분은 건드리지 않아 상장 사교육 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듯 - 교과서 관련 콘텐츠 업체엔 일부 긍정적 영향
	미디어/광고	- 방송법, IPTV 법, 통신관련법 체계 통합화 및 관련 부처 개편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 콘텐츠 육성 지원 -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 유료방송법 통폐합은 그동안 꾸준히 논의돼 왔던 만큼 진행될 가능성 높음. 다만 시간이 오래 걸릴 이슈. 이와 함께 미디어 관련 규제 완화가 동시에 이뤄진다면 미디어 전반적으로 긍정적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따라 MBC의 민영화 이슈도 부각될 가능성 있음. 이 경우 SBS 그룹에 긍정적 - 콘텐츠 산업 육성 정책은 콘텐츠 제작 및 유통 업체에 긍정적
	유통	-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입 규제 -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불공정 행위 근절	- 박근혜, 문재인 후보 모두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공약 제시. 기존 시행되고 있는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입 규제 및 골목상권 보호와 관련된 정책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 - 그러나 박근혜 후보의 공약은 총론의 성격이 띄고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한 문재인 후보의 공약보다 상대적으로 할인점, 슈퍼마켓에 우호적. 골목상권 진출을 규제하는 정책 시행시 대기업과의 절충안이 나올 가능성 있음 - 같은 점: 편의점 규제 현실화. 신규 출점수 줄어듦 전망
필수소비재	음식료/담배	- 대형유통업체의 중소도시 진입 규제 - 국제곡물가 급등에 대비한 안정자금 조성	
	제약/바이오	- 선택적 의료, 의료취약계층/중증보장성 확대 집중 - 4대 중증질환 단계적 보장성 강화 - 65세 이상 노인 입플란트, 경증 치매환자 건강보험 적용 - 의료민영화: 영리병원 경제자유구역 내 제한 허용	- 기존 이명박 정부의 의료개혁정책 기초('중증 등 필수의료 보장성 강화, '비용집행의 효율성 강화로 재정안정화 추구')유지료 정권교체에 따른 추가 리스크 제한적 - 이미 이명박 정부때 제약산업에 대한 강도높은 구조조정 진행되었으므로,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신규 리스크는 제한적 -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의약품/의료기기 해외수출 확대 지원을 위한 de-regulation 오히려 긍정적

		새누리당 박근혜 당선시 섹터 영향	
섹터	인더스트리	관련된 공약 및 정책	애널리스트 의견
금융	금융 공통	-금산분리: (1)금융사의 비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예외한도 축소, (2)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 의무화, (3)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 축소, (4)모든 금융사에 대해 대주주적격성유지심사 실시	-의결권 제한 예외한도를 축소는 중간금융지주회사 허용과 연계된 조치. 다만, 이를 위한 지주사, 각 금융관계법, 세법 등 제반 제도 변경까지 과제 많아 불확실성 높음 -장기적으로는 중간금융지주회사로의 전환 과정에서의 유불리를 둘러싼 이벤트 투자 활발 예상 -은행지분 보유한도 축소의 현실적 영향없고, 산업자본의 증권/보험 소유는 계속 허용
	은행	- 가계부채 대책으로 국민행복기금 조성 후 연체채권 매입, 하우스푸어의 부채 상환기간 연장 및 금리 조정 - 렌트푸어를 위한 '목돈 필요없는 전세대책'과 하우스 지분 매각제도, 임대주택 공급 및 주택연금 활성화	- 가계부채 대책 중 국민행복기금을 활용한 연체채권 매입은 배드뱅크 설립과 동일한 효과로 은행에 긍정적 전망이며 가계부채 상환기간 연장 및 금리 조정은 이미 시행중임 - 하우스푸어 대책의 경우, 전세금대출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되면서 은행 이자수익이 감소할 수 있고 시스템 리스크 완화되지만 실현 가능성 낮음
	보험	- 복지관련 세부 공약: 1)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필수의료행위,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확대 등), 2) 본인부담 의료비 상한제를 통한 부담 조정(암, 뇌혈관, 심장질환 등 산정특례제도와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합하고, 상한액을 적정 하향 조정하여 의료비 부담을 완화 등 - 경제민주화 관련: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의 권익 보호 등	- 복지 정책의 경우 기존 MB 정책의 큰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공공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각 - 공보험의 역할 확대는 단기적으로는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액 증가 둔화로 연결되므로 긍정적이나, 장기적으로는 공공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의료보험의 수요 성장 둔화로 귀결될 수 있어 부정적 -설계사들에 대한 노동권 강화 조치를 산재보험에 국한하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재무적 부담은 크지 않을 것
	증권	-기업지배구조:(1)대기업 신규 순환출자 금지, (2)비지배주주의 사외이사 선임 시스템 구축, (3)공적 연기금 의결권 행사 강화, (4)집중투표, 전자투표 및 다중대표소송제도의 단계적 도입 -대기업정책:(1)특가법상 횡령 등에 대한 집행유예 불가능, (2)대기업 지배주주 및 경영자에 대한 사면권 제한, (3)일감몰아주기 등 내부거래 금지 및 부당이익 환수 -조세:(1)세율 인상 없는 비과세/감면 축소, (2)최고세율 하향조정, (3)부가가치세 개편, (4)법인세율 유지, (5)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 (6)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확대	-대주주를 견제할 다수의 제도를 제안하고 있으나, 영향력 큰 사안은 단계적 실시 내지 뚜렷한 기준 제시하지 않음에 따라 이후 실현 과정에 따라 영향도는 달라질 것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가 배당제고 및 소수주주권 보호와 연결될 수 있을지 관심 -금융상품 비과세 혜택 축소,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하향으로 금융자문수요에 따른 PB 역량 부각 예상
IT	인터넷포털/게임	- 모바일 게임 섯다운제 찬성	- 온라인게임 섯다운제의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모바일 게임 섯다운제를 시행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도 미비한 상황이라 실제 모바일게임 업체들의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전기전자/통신장비	- 일감 몰아주기 - 고환율정책 재검토	- 현 정부 대비 국제적/정책적인 원화 절상 용인으로 이로 인한 경쟁력 및 실적 악화 가능성
	디스플레이	- 일감 몰아주기 - 고환율정책 재검토	- 현 정부 대비 국제적/정책적인 원화 절상 용인으로 이로 인한 경쟁력 및 실적 악화 가능성
	반도체	- 일감 몰아주기 - 고환율정책 재검토	- 현 정부 대비 국제적/정책적인 원화 절상 용인으로 이로 인한 경쟁력 및 실적 악화 가능성
통신서비스	통신서비스	- 가입비 폐지 - 유통구조 개선으로 고가 단말기 가격인하 유도	- 가입비 폐지는 수익에 부정적이며 단말기 보조금 축소 예상 - 단말기 가격 하락시 요금인하 압력 줄고 보조금도 감소
유틸리티	전기/가스	- 원전 안전성 확보후 원전건설 지속 추진할 듯	- 정부는 원전확대를 계속 추진하겠지만, 국민들의 반감이 커질 수 밖에 없어 원전추가 건설은 상당부분 연기 또는 취소될 가능성 높음
지주회사	지주회사	- 지주회사 관련법 - 출총제 - 순환출자	- 지주회사, 출총제, 순환출자 등 지주회사 체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에 대해서 현재의 정책을 유지함 - 따라서 기존 지주회사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스몰캡	스몰캡	-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 제고 - 납품단가 협상력 제고	-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 내 기업들의 수혜 강화 - 대기업으로부터의 단가 인하 압력 완화

자료: 한국투자증권

부동산규제 우려로 중국증시 혼조세

- ▶ 중국, 11월 FDI 순유입액 전년동월비 5.4% 감소, 6개월째 마이너스 증가세
- ▶ 중국, 11월 70대 도시 가운데 53개 도시 신축주택 가격 전월비 상승, 규제우려 강화
- ▶ 홍콩, 11월 실업률 3.4% (직전치 3.4%)

상해지수 사흘째 강세
펀드매수세, QFII 확대 호재
로 증권주 급등
규제 우려로 부동산주 약세

■ 중국 시장

상해종합지수가 사흘째 상승세를 지속했다. 하락 출발 후 장 중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인 끝에 강보합세로 마감했다. 거래금액은 990억 위안으로 직전 거래일에 비해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였다. 올해 신규펀드 설립 규모가 지난 2007년을 상회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한 데다 최근 펀드 매수세 확대, QFII 투자한도 완화 등에 힘입어 장 초반 증권주가 급등했다.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부각된 은행주도 크게 오르며 지수 상승을 주도했다. 또한 중국 상무부가 내년 수출 회복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금속 관련주도 일제히 올랐다. 중국 정부가 내부적으로 내년 GDP 성장률과 CPI 상승률 목표치를 각각 7.5%, 3.5%로 설정했다는 언론 보도도 우호적인 요인이었다. 그러나 장 중 11월 FDI가 감소세를 확대한 것으로 발표됐고 11월 주택가격 상승세로 부동산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시 강화됐다. 중국 국토부는 토지거래 단속 등 부동산 규제 기조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고 이로 인해 부동산주가 동반 하락했다.

■ 홍콩 시장

홍콩 H지수는 강보합세로 마감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존 베이너 하원의장의 첫 회동으로 재정절벽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고 해외자금 유입도 지속됐다. 그러나 11월 중국 주요 도시 부동산가격 상승세와 1선 도시 주택매입 급증에 따른 부동산 규제 우려, 극우세력인 자민당의 재집권 후 중-일 갈등 심화 가능성, 피치사의 중국 국가신용등급 전망 하향 등이 지수 상승세를 제한했다. 지수가 보합권 내 등락을 반복했으나 업종별, 종목별로는 등락이 크게 엇갈렸다. 도시화 호재로 기계업종이 3% 가까이 급등했고 건설, 은행, 정유주도 강세를 나타냈다. 반면 건설자재, 보험주는 크게 내렸고 특히 일본과 관련된 광주자동차(-5.5%), 장성자동차(-4.0%), 동풍차(-2.7%)의 급락으로 자동차업종이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홍콩 H지수 강보합 마감
기계, 은행, 정유주 강세
일본 관련주 큰 폭 하락

◆ 주요 이머징마켓 주가지수 추이

(단위: p, %)

구분	12/18(화)	전일 대비(%)	5거래일 전 대비(%)	1개월 전 대비(%)	연초 대비(%)
중국 상해종합	2,162.46	0.10	4.23	9.21	-1.68
홍콩 H	11,301.72	0.07	2.82	6.39	13.74
인도 SENSEX	19,364.48	0.62	-0.12	0.13	25.30
러시아 RTS	1,504.93	0.92	1.38	4.76	8.91
브라질 보베스파	59,566.52	-0.06	0.54	3.64	4.96
베트남 VN	393.39	-0.06	1.03	4.12	11.90
MSCI 이머징마켓	1,040.02	-0.27	0.53	3.28	13.49

주: 18일 오후 5시 30분 기준

전일 시장 동향과 특징주

재정절벽 협상 타결 기대감 및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되며 상승

- 미국 증시는 12월 엠파이어스테이트지수가 5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투자심리를 위축시켰으나, 재정절벽 협상이 연내 타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살아나며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 상승세로 마감. 1,900P선을 회복하며 출발한 코스피는 기술적 부담 및 엔화 약세에 따른 우려 등으로 장중 내내 보합권에 머물렀으나, 장 막판 외국인과 프로그램 매수세가 확대되며 상승세로 마감. 반면 상승세로 출발한 코스닥은 개인의 매수에도 불구하고 투신을 비롯한 기관의 매도세로 하락 반전, 이틀째 하락세를 이어감
- 종목별 움직임을 살펴보면, 법정관리 중인 웅진홀딩스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주력 계열사 코웨이에 이어 웅진케미칼을 내년중 매각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웅진케미칼이 이틀째 상한가 행진을 이어 갔으며, 대규모 수주 등으로 실적 개선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쏠리드가 급등. 연말을 앞두고 글로벌 경기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대두됨에 따라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며 증권주가 강세를 나타냈으며, 중국의 태양광 지원 정책에 힘입어 업황 회복 기대감에 태양광 관련 종목들이 연일 상승세를 보임. 또한, 올 겨울 한파와 함께 잦은 폭설이 예상되는 가운데 자동차 타이어 교체 수요 증가 기대감에 타이어 관련 종목들의 강세가 돋보임. 한편,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된 후너스는 신저가를, 유상증자로 인한 물량 부담감으로 대한전선은 하한가를 기록

종목/테마	내 용
웅진케미칼(008000) ▶753(상한가)	매각 기대감에 이틀째 상한가 - 웅진홀딩스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주력 계열사인 코웨이에 이어 웅진케미칼 매각을 내년중 에 추진한다는 소식에 이틀째 상한가 - 현재, 채권자협의회와 매각에 대해 합의는 이루어졌으나, 인수대상자, 매각지분, 매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논의되지 않은 상태
쏠리드(050890) ▶4,200(+8.25%)	실적 증가세 지속 전망에 급등세 - 최근 LTE 전송장비 및 통합형 중계기 공급 계약 체결 등 대규모 수주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 감에 급등 - 아울러, 내년 2월 제4이동통신에 대한 사업허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소식도 긍정적으로 작용. 당사는 국내 최대의 중계기 사업자로서 사업 허가시 수혜 기대
증권주	코스피 2,000P선 탈환 기대감에 강세 - 최근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에 대두되는 가운데 코스피 2,000P선 회복을 앞 두고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며 강세 - 한국금융지주(071050, +3.75%), 동양증권(003470, +3.53%), 현대증권(003450, +2.82%), 우리투자증권(005940, +2.62%), HMC투자증권(001500, +2.29%) 등 강세
태양광 관련주	업황 개선 기대감에 연일 강세 - 중국의 경기 회복과 함께 최근 태양광업체 대상 보조금의 상향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업황 개선 기대감에 연일 강세 - 오성엘에스티(052420), 키스톤글로벌(012170), 신성솔라에너지(011930, 이상 상한가), 신성 에프에이(104120, +8.73%), 에스에너지(095910, +4.69%) 등 강세

참고: 상기 종목들은 전일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로, 추천 종목과는 별개이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유망종목: 대양전기공업 외 5개 종목

- 신규: 없음

- 제외: 없음

(단위: 원, %)

종 목 (코 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투자 포인트
대양전기공업 (108380)	12,950 (+1.6)	12,750 (12/12)	- 선박용 조명기구 전문회사로 해양 플랜트 조명으로 사업영역 확대. 추가로 군함용 통신시스템 및 배전반을 생산하고 있으며, 자동차용 센서를 신사업으로 추진 - 주력인 선박 조명과 플랜트, 방산 등 전 분야에서 안정적인 실적 흐름 지속. 현재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자동차용 압력 센서에 대한 국내 완성차업체의 국산화 의지와 맞물려 2013년부터 가시적인 성과 기대
MDS테크 (086960)	12,850 (-1.5)	13,050 (11/30)	- 임베디드 소프트웨어(OS, 애플리케이션, 개발툴) 전문업체로 차량 및 국방/항공 분야 IT융합 수요 확대 등으로 중장기 성장성 부각 가능성. 4분기에는 계절성(연말 고객사 SW관련 예산 소진)과 더불어 현대오트론 등 자동차 전자회사향 매출 확대에 따른 실적 개선 모멘텀 재개 예상 - 성장성, 기술 경쟁력, 진입장벽 등을 감안할 때 저평가 매력 부각 가능성 상존
동일금속 (109860)	12,900 (-2.3)	13,200 (11/20)	- 크롤러크레인 트랙슈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로 국내외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제품다변화를 통해 2012년 사상 최대 실적 달성 전망 - 글로벌 광산 개발투자 확대에 따른 초대형 굴삭기 투락슈 수요 증가세 지속 전망 - 독창적 아이템으로 가격 경쟁력, 일괄공정체계로 원가경쟁력
엠케이전자 (033160)	4,760 (+13.7)	4,185 (11/02)	- 최근 본딩와이어 시장은 비용부담이 큰 골드(Gold)본딩와이어의 대체품으로 구리를 사용한 본딩와이어(PCC; Pd Coated Copper Wire)가 개발돼 시장 구조의 변화가 진행 중임, 당사는 글로벌 구리본딩와이어 시장에서 일본 NMC사에 이어 M/S 2위 기록 중 - 현재 구리본딩와이어는 대만 패키지 업체들로 주로 공급되고 있으나, 향후 국내 칩메이커들로도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PCC의 매출 확대에 의해 2%대에 불과하던 영업이익률은 점진적인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로엔 (016170)	11,850 (-18.0)	14,450 (11/02)	2013년 음원가격 상승으로 멜론 서비스의 가입자당 매출액(ARPU) 증가와 함께 SKT와의 공동 마케팅으로 인한 가입자 증가에 따른 성장성 부각 가능성 - 저작권 보호, 콘텐츠 수요 확대 등 우호적인 산업, 보유 아티스트 라인업 확대, 수직 계열화된 사업부문의 경쟁력, 경쟁업체 대비 저평가 매력 등을 주목할 필요
골프존 (121440)	60,000 (+7.1)	56,000 (10/18)	- 스크린골프 라운딩수 증가와 유료라운딩을 상승으로 네트워크 매출 호조, 신제품 골프시뮬레이터 비전의 양호한 매출 등을 감안할 때 밸류에이션 매력 재부각 가능성 상존 - 또한 골프존 아카데미, 골프존 마켓 등 기존 신규 사업 외에 무료 필드 부킹과 디지털 캐디 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추가 수익원 발굴 노력을 주목할 필요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제시된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골프존 발행주식의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대표 주관업무를 수행한 증권사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의 조사분석 담당자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중장기 유망종목: LS 외 5개 종목

- 신규: 없음

- 제외: 없음

(단위: 원, %, 십억 원, 배)

편입종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2012년 추정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LS (006260)	93,300 (+6.6)	87,500 (11/20)	12,291	574	234	8,410	11.1
			- 2013년에는 LS전선과 LS산전의 실적 개선 예상. LS전선은 고수익 제품인 해저전력선의 해외 프로젝트가 실적에 반영되고 중동 초고압 전력선의 호황기 진입에 따른 실적 개선 예상 - 또한 LS산전은 이라크를 필두로 동남아시아 시장으로의 확대, 신규 사업 적자 축소 등으로 영업이익 개선 예상. LS니코동제련도 도시광산 자회사의 성장으로 이익 증가 전망				
삼영이앤씨 (065570)	7,300 (+0.8)	7,240 (11/07)	46	11	9	1,023	7.1
			- 방산부문의 안정적인 수요, 선박안전 관련 규제 강화(Solas협약, 어선법), 일본 및 중국으로의 수출 확대 등으로 안정적인 실적 개선 모멘텀 지속 예상 - 연평균 15% 이상의 성장세, 20%를 상회하는 영업이익률, 안정적인 재무구조, 우호적인 시장 환경 등을 감안할 때 리레이팅 가능성 상존				
삼성전자 (005930)	1,515,000 (+16.6)	1,299,000 (10/30)	203,704	28,800	22,831	151,499	10.0
			- 갤럭시S3의 판매 호조에 따른 스마트폰 판매 증가 및 이익률 상승으로 안정적인 실적 흐름 지속 - 최근 갤럭시노트10.1의 호평에 힘입어 태블릿의 경쟁력 부각 - 휴대폰 부문의 캐시카우 역할이 지속되는 가운데 반도체 실적 개선 본격화로 2013년에도 실적 개선 모멘텀 지속 전망				
NHN (035420)	231,000 (-11.2)	260,000 (10/23)	2,377	633	503	11,428	20.2
			- PC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높은 검색 점유율 유지 -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인 '라인(LINE)'의 일본 등 해외시장에서 폭발적인 인기로 중장기 성장원 확보 - 워닝일레븐 온라인 등 신규 대작 게임들의 출시로 웹보드게임 부진을 만회할 전망				
KCC (002380)	299,500 (+7.3)	279,000 (9/27)	3,434	225	696	70,906	4.2
			- 금년 하반기부터 주택 입주량이 3년 만에 증가세로 반전함에 따라 이익의 Down-side Risk 완화. 전략적 지분 매입을 통한 Captive market(올해 1월에는 에버랜드 주식 매입)을 확보하고 있어 경쟁업체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이익 안정성 확보 - 전방산업의 업황 바닥 통과 가능성, 수직 계열화를 통한 시장 지배력 강화, 이익 안정성 등을 감안할 때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가능성 상존				
LG화학 (051910)	332,500 (+2.0)	326,000 (9/17)	24,006	2,177	1,627	22,136	15.0
			- 업황 부진에도 불구하고, 다각화된 사업구조와 높은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으로 안정적인 이익 구조가 유지되고 있으며 LCD용 유리기판, 2차전지 등 장기 성장성을 주목할 필요 - 석유화학 제품의 스프레드 개선, 정보전자소재 및 전지 제품의 판매량 증가 등으로 3분기에는 실적 개선 기대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삼성전자, LG화학, NHN의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통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현재 NHN 발행주식의 자기주식취득 위탁 증권사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조사분석 담당자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서치 4분기 LCD TV 판매 전망치 2.2% 하향 조정

■ 4분기 전세계 LCD TV 출하량 6천6백만대로 기존 대비 2.2% 하향 조정

디스플레이서치가 2012년 4분기 LCD TV 출하량 전망치를 기존 67.4백만대에서 66.0백만대로 2.2% 하향 조정했다. 이로써 2012년 연간 LCD TV 출하량 전망치도 전년 대비 0.4% 감소한 204.5백만대로 낮아졌다. 4분기 LCD TV 출하량 6천6백만대는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한 수준으로 2012년 분기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YoY 성장할 전망이다. 2012년 연간 내내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면서 LCD TV 수요는 예상보다 부진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 중국 시장만 4분기 YoY 및 9월 대비 추정치 상승, 하지만 1Q13 peak out 예상

지역별 LCD TV시장을 보면 지난 3분기부터 중국시장의 회복이 두드러진다. 에너지 절감형 가전에 대한 보조금 정책 영향으로 중국의 중소도시 위주로 TV수요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러한 중국 TV시장의 성장세도 2013년 1분기를 고점으로 점차 낮아질 전망이다. 1분기에 춘절이 있고, 2012년 1분기 LCD TV 수요가 부진했던 기저효과 등으로 높은 성장률이 예상되지만, 이후에는 보조금 정책효과와 희석화 등으로 성장률이 낮아질 것이다. 중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은 LCD TV 성장세가 낮아지고 있다. 특히, 중남미,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 등의 성장률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어 2013년 TV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도 높아지고 있다.

■ 중국TV업체들의 재고 restocking이 마무리되는 1월부터 패널가격 하락 전망

중국시장의 회복으로 중국 TV업체들의 TV패널 재고축적이 지속되고 있다. 그 결과 32인치 패널가격이 지속상승하고 있고 대만 패널업체들의 패널출하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 패널수급도 타이트하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중국TV업체들의 패널재고 축적이 마무리되는 1월부터는 패널수급이 완화되면서 패널가격도 하락할 전망이다. 패널가격 하락과 패널출하량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패널업체들의 1분기 실적도 4분기 대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 디스플레이 업종 및 LG디스플레이에 대해 투자의견 '중립' 유지

LCD TV수요 약세로 재고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디스플레이 업종에 대해 투자의견 '중립'을 유지한다. 보조금 정책으로 인한 중국시장의 회복이 1분기를 고점으로 약화될 전망이어서 1분기 패널가격 하락이 예상된다. LG디스플레이에 대해서도 투자의견 '중립'을 유지한다. 최근 애플 아이폰5의 수요부진에 대한 우려로 주가가 단기 고점 대비 15% 하락했지만, TV수요 부진과 이에 따른 패널가격 하락 위험이 있어 아직은 매수할 시점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상기 보고서는 2012년 12월 17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보험: 대통령 선거 투표 결과에 따른 산업 영향

■ 금번 대통령 선거, 금융기관 소유에 대한 쟁점이 비은행금융회사로 이전되어 진일보

금융업종의 펀더멘탈과 주가에 규제는 큰 영향을 끼친다. 올해 대통령선거 유력 후보 2인은 은행의 소유 규제에 대해 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강화하고 있어 차이가 없다. 반면, 비은행금융기관의 소유에 대해서는 크다. 한국의 주요 재벌들이 증권, 보험업에 진출해 있는 터여서, 어느 후보가 당선되어도 대통령 선거 이후 펀더멘탈과 주가는 차이날 수 밖에 없다. 지금까지 나타난 공약으로 볼 때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이슈가 될 사안은 ‘(일정규모 이상 기업의)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 의무화’ 이다. 만약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기존 출자를 포함한 순환출자’ 해소와 ‘공적복지 강화’가 민간 영역에 미칠 영향이다.

■ 대통령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규제 점검

우리는 한국이 직면한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산업에 어떤 식으로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며 앞으로 변화할 모습을 9가지 정도로 제시한 바 있다. 이들은 어느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실현 가능성이 높은, 2013년과 이후의 기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구체적으로 ‘선제적 위기대응 명분의 손실흡수 능력 강화 요구’가 대표적이다. 보험사들에 대한 RBC 규제 강화 방침이 다시 환기되고 있어, 동 비율이 낮은 회사들에 대해서는 배당성향 기대를 낮추어야 할 것이다.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도 고려해야 한다. 민간보험사들의 FY12 보험료가 150조원을 넘길 상황에서 보험상품에 대한 판매/제조회사의 대(對) 고객 책임은 강화될 것이다.

가계에 대한 대출 성장이 제약 받는 대신 저축, 특히 연금의 적립은 장려될 것이다. 이는 은행의 주요 업무가 바뀌는 것을 뜻하고, 은행과 비은행금융사의 성장을 격차가 커질 것이다. 산업구조 변화의 중심에 ‘가계대출 위주의 소매금융 모델 변화’가 자리 잡고, 구체적으로는 ‘연금산업 성장’, ‘장기채권 시장 성장’, ‘대출상품 구조 변화’가 뒤따를 것이다.

세제 변화도 고려돼야 한다. 개인 소득세율 인상에 대한 유력 후보들의 입장은 엇갈린다. 그렇지만,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혜택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한국의 자산가들이 선호하는 고정수익형 상품(Fixed income products)의 매력은 금리와 함께 같이 낮아지고 있다. 금융자문수요의 성장이 자극받을 상황에 근접하고 있다.

■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달라질 규제 점검

금융정책 중 은행의 소유규제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산업자본의 보유 한도 규제를 강화하고, 보험사와 증권사의 대주주적격성유지심사를 도입한다는 점에서 같다. 반면, 대기업의 ‘비은행금융계열사’ 정책에서는 차이난다. 박근혜 후보는 비은행금융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 예외한도를 축소하는 대신, ‘일정규모 이상 기업군들에 대해서는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를 의무화하는 공약을 내걸었다’. 중간금융지주회사와 관련된 지주회사, 세법, 관련 금융법 등 제도를 변경해야 하는 과제가 불확실성으로 남지만, 박근혜 후보가 당선된다면 이와 관련해 유/불리를 따지는 투자가 활발할 것이다. 반면, 문재인 후보가 당선된다면 ‘순환출자 해소’ 요구 외에도 지주회사 차입제한, 본인부담금 하향 등 국민건강보험의 역할 강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하향 등 금융사 뿐 아니라 소비자의 이해를 둘러싼 변화가 많을 것이다.

*상기 보고서는 2012년 12월 17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은행: 규제 리스크 계량분석 - 대선 이후 규제 기회비용 순증 둔화 전망

■ 규제 리스크가 한몫 했던 은행주 부진, 대선 이후 달라질 가능성

2009년말 0.9배였던 은행주 12개월 forward PBR은 현재 0.5배로 낮아졌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저점과 흡사한 수준이다. 은행주의 낮은 밸류에이션의 주원인 중 하나는 지속적인 규제 리스크로 인해 은행주 ROE에 대한 확신이 적다는 점이다. 2009년 이후 심화된 규제 리스크로 인한 수익성 악화 정도가 커질수록 은행주의 상대 수익률은 부진했다. 그러나 2013년 규제 리스크가 기존 대비 추가적으로 강화될 여지는 적어보인다. 두 대선 후보들의 금융 관련, 특히 가계부채 관련 공약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이미 시행 중인 내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대선 이후 규제 리스크의 추가 증분이 적다는 점이 확인될 경우 은행주의 저평가 밸류에이션 매력에 부각될 여지는 충분하다.

■ 규제 개수와 규제 기회비용 모두 고점이었던 2011년이 은행주 수익률 가장 부진

은행업종의 규제 리스크를 관련 문건 개수와 그로 인한 기회비용의 규모를 통해 가늠해보았다. 먼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 중 금융업종 규제 리스크 관련 문건의 개수를 세어보면 2008년과 2009년의 경우 각각 8개와 6개 수준에 불과했으나 이는 2011년에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24개, 2012년에는 26개에 달했다.

보도자료 건수는 한 가지 이슈에 대해 중복적으로 게재되기도 하므로 규제로 인한 은행 수익성의 기회비용 규모를 각 연도별로 산출해보았다. 규제가 소개되면 즉시 시행을 가정했고 새로 시행된 규제의 순익 영향만을 연도별로 취합했다. 그리고 4분기마다 계절적으로 시행되는 추가 충당금 적립은 대손비용에 포함되므로 제외했다.

그 결과 2010년부터 본격화된 규제 리스크로 인한 은행의 기회비용의 증가 폭은 2011년에 가장 컸다. 2010년 3천 억원 수준으로 집계된 기회비용 규모는 2011년 9천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2011년 은행주의 상대적 수익률도 악화되었다. 특히 2011년은 은행들의 대출성장, NIM, 대손비용 등 핵심지표가 모두 개선되는 시기였음에도 은행주의 상대수익률이 가장 부진했던 점은 규제 리스크의 기회비용이 컸기 때문으로 판단한다.

■ 대선 후보들의 금융 공약 점검: 향후 규제 리스크로 인한 기회비용의 순증은 둔화 전망

우리가 주목하는 점은 2011년 가장 컸던 기회비용 규모가 2012년 소폭 축소되면서 고점을 지났다는 점이다. 규제 리스크로 인한 기회비용의 한계비용이 낮아지고 있는 셈이다. 2011년 은행주의 KOSPI 대비 상대수익률은 -22% 였으나 2012년에는 -8%로 조금 나아졌다.

2013년에 시행되는 규제 중 알려진 내용은 바젤 III 적용과 은행들의 신용등급별 대출 자산금리 비교공시를 추진하는 것이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우리는 두 대선 후보들의 금융 관련 공약내용들을 분석한 결과 은행주에 추가적 규제는 적어질 것으로 판단한다. 특히 가계부채와 같이 장기적인 고민에 대해서도 대선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현재 이미 시행 중인 내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알려진 내용 이상의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하지 않으며 그에 대한 리스크는 이미 현재의 낮은 밸류에이션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대선 이후 규제 리스크의 증폭이 심화되지 않는다는 점이 시장에 알려지면 은행주의 상승 재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상기 보고서는 2012년 12월 18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두산인프라코어(042670)

중립(유지)

종가(12/17): 17,100원

4Q12 Preview: 전분기대비 개선되나 기대에는 못 미쳐...

■ 중국 굴삭기 판매 지연. 투자의견 중립 유지

중국 굴삭기 시장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3분기 중국 굴삭기 시장 전체 판매대수는 전년 동기대비 약 35% 감소했고, 같은 기간 두산인프라코어의 판매는 38.6% 감소해 점유율이 하락했다. 10월과 11월 판매도 405대, 435대로 부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4분기 영업실적도 시장의 기대치를 하회할 전망이다. 내년 순이익 기준 PER은 15.2배로 주가 upside가 높지 않아 주가는 횡보할 전망이다. 이에 투자의견을 중립으로 유지한다.

■ 중국 경제공작회의 도시화 강조는 장기적으로 건설기계 산업에 긍정적

12월 15~16일에 진행된 중국 경제공작회의에 따르면 내년에 가장 강조될 경제정책은 도시화가 될 것이다. 이는 분명 건설기계시장에 긍정적이다. 2011년말 기준 51%에 머무르는 중국의 도시화율을 장기적으로 70%로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재천명 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도시화는 농촌지역을 도시화하는 공간적 개념과 농촌인구를 도시거주민으로 전환하는 사회적 개념이 합쳐진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즉, 도시화를 통해 발전과 내수확대, 민생보장을 달성하겠다는 의미이며 단순히 과거와 같은 부동산 개발, 인프라 과잉투자를 통해 도시라는 물리적 공간을 확대하겠다는 뜻이 아니다. 이 때문에 도시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단기간에 건설기계 시장의 수요 개선으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다. 건설기계 판매와 직접적인 유의성이 높은 부동산 및 주택 관련 정책은 내년 상반기에 구체화되어 내년 하반기 이후 서서히 건설 기계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중국 굴삭기 판매량은 올해 대비 5% 성장하여 여전히 부진할 전망이다.

■ 4Q12 Preview: 전분기 대비 소폭 개선되나 여전히 바닥 다지는 중

우리의 4분기 실적 추정치는 매출액 1조 8,943억원(-7.2% YoY), 영업이익 379억원(-59.6% YoY)으로 FnGuide 컨센서스 매출액 2조 704억원과 영업이익 868억원 대비 각각 8.5%, 56.3%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4분기는 중국을 포함하여 국내외 굴삭기 시장의 비수기로 매출 회복은 기대하기 힘들다. DII(밥캣) 미국법인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유럽 법인의 가동률 하락도 수익성을 압박하는 요인이다. 전분기에 이어 판매가 부진한 중국법인과 유럽법인의 재고 자산평가손실 충당금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건설기계 부문의 영업이익률이 전분기 0.3%와 비슷한 0.5%에 머무를 것이다. 엔진부문도 적자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나 공작기계부문 영업이익률은 최근 엔화약세로 인한 원가율 개선으로 전분기대비 소폭 개선된 10%를 기록할 전망이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세전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2010A	7,482	676	214	210	1,245	0.0	928	22.5	11.4	3.3	15.4
2011A	8,463	708	285	298	1,769	42.1	930	10.1	9.3	1.6	18.1
2012F	8,277	400	98	301	1,641	(7.2)	643	10.4	13.1	1.4	15.2
2013F	8,405	486	290	215	1,125	(31.4)	733	15.2	11.5	1.2	9.7
2014F	8,883	645	384	284	1,534	36.4	897	11.1	9.1	1.1	11.6

*상기 보고서는 2012년 12월 17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고려아연(010130)

매수(유지)

목표가: 590,000원(유지)

종가(12/17): 401,000원

4분기 역재고 효과로 실적 부진 예상

■ 4분기 역재고효과로 영업이익 1,910억원으로 추정

4분기 별도기준 영업이익이 1,910억원으로 추정된다. 우리의 기존 추정치(2,510억원) 대비 24%, 컨센서스(2,380억원) 대비 18% 하회하는 것이다. 추정치를 변경한 이유는 기존에는 재고 변동(기초 재고와 기말재고의 차이)을 원가에 반영하지 않았으나, 이번에는 600억원을 원가에 반영했기 때문이다. 즉, 기말 재고가 기초 재고보다 600억원 낮아 그만큼 원가가 늘어나는 '역재고효과'를 실적 추정에 반영했다. 4분기 제품과 재공품의 합계 기초 재고액은 4,290억원으로 2012년 들어 가장 높다. 역재고효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2012년 연결기준 EPS가 35,249원에서 32,521원으로 7.7% 감소했다.

■ 4분기 실적에 적용되는 가격은 분기 중 가장 좋아

2012년 분기 중 실적이 가장 좋은 분기는 2분기다. 별도기준 영업이익이 2,595억원으로 영업이익률이 19.9%였다. 이에 반해 3분기는 1,505억원, 4분기는 1,910억원으로 2,000억원을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 3분기는 2분기보다 비철이나 귀금속 가격이 하락했지만 4분기는 전반적으로 2분기보다 가격이 더 좋다. 재고 변동에 따라 원가가 상승하지 않았다면 영업이익이 우리의 기존 추정치를 충분히 달성했을 것이다.

■ 희소 금속 가격 하락이 2012년 이익 감소의 주요 요인

별도기준 2012년 연간 매출총이익이 8,611억원으로 전년보다 875억원 감소할 것으로 판단한다. 이를 금속별로 세분화하면 아연은 810억원, 인듐 293억원, 기타금속(주로 희유금속) 736억원 감소했고, 연 640억원, 은 130억원, 금 183억원, 동 11억원 늘 것으로 추정된다. 비철금속(아연, 연, 동)과 귀금속(금, 은)을 합한 매출총이익이 154억원 늘지만 기타(인듐 포함)가 1,029억원이나 감소해 이익이 줄게 되는 것이다. 2012년 이익 감소의 원인이 비철이나 귀금속 가격보다는 희소 금속 가격 하락에 기인한다 할 수 있다.

■ 2013년엔 TC 상승과 더불어 희소 금속 가격도 상승 예상, '매수' 유지

2012년 매출총이익 감소는 아연과 기타금속에 기인한다. 아연은 제련수수료가 191달러/톤으로 2011년의 230달러/톤보다 낮아진 게 이익 감소의 원인이다. 그런데, 2013년은 아연 제련수수료가 2011년과 같은 230달러/톤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1) 중국의 정광 수입량 하락, 2) 정광 재고 증가로 제련수수료 협상에서 제련사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희소금속 가격도 상승할 것이다. 미국이 유동성 확대 정책을 유지하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희소금속 재고 확보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투자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590,000원을 유지한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세전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2010A	3,838	684	726	549	31,054	32.2	773	8.9	6.5	1.9	22.4
2011A	5,556	964	975	705	39,868	28.4	1,076	7.6	4.6	1.7	23.1
2012F	5,553	862	842	619	35,035	(12.1)	972	11.5	6.7	1.9	16.9
2013F	6,315	1,144	1,157	868	49,099	40.1	1,265	8.2	4.9	1.6	20.0
2014F	6,596	1,314	1,367	1,026	58,052	18.2	1,451	6.9	4.0	1.3	19.7

*상기 보고서는 2012년 12월 18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이수정 (sujeong.lee@truefriend.com) ☎ 02-3276-6252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12/11(화)	12/12(수)	12/13(목)	12/14(금)	12/17(월)	12/18(화)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1,964.62	1,975.44	2,002.77	1,995.04	1,983.07	1,993.09
	등락폭	7.20	10.82	27.33	-7.73	-11.97	10.02
	등락종목						
	상승(상한)	385(3)	467(8)	517(9)	381(5)	310(4)	429(6)
	하락(하한)	417(6)	330(4)	282(0)	410(5)	501(3)	385(1)
	ADR	88.61	91.74	98.99	102.93	96.06	94.87
	이격도						
	10 일	101.10	101.33	102.38	101.66	100.83	101.04
	20 일	102.45	102.79	103.86	103.10	102.20	102.45
코스닥	투자심리	60	70	70	70	60	70
	거래량 (백만 주)	400	453	414	346	362	448
	거래대금 (십억 원)	4,427	4,561	5,894	4,250	4,204	4,558
	코스닥지수	481.59	485.33	490.15	491.65	485.48	483.19
	등락폭	-8.00	3.74	4.82	1.50	-6.17	-2.29
	등락종목						
	상승(상한)	306(3)	497(5)	635(9)	514(6)	330(14)	367(7)
	하락(하한)	622(16)	408(5)	280(2)	390(2)	597(5)	529(4)
	ADR	79.51	83.81	91.68	98.23	90.35	87.00
코스닥	이격도						
	10 일	97.54	98.48	99.59	100.06	99.07	99.00
	20 일	97.44	98.37	99.39	99.60	98.43	98.10
	투자심리	60	60	60	60	60	50
	거래량 (백만 주)	346	323	286	332	310	318
	거래대금 (십억 원)	1,596	1,444	1,323	1,403	1,328	1,452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증권)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종기금)	기 타
유가증권	매수	1,848.9	1,527.5	1,154.5	321.2	147.4	300.5	61.7	28.4	214.1	59.4
	매도	2,106.2	1,302.3	1,126.7	214.1	163.8	354.2	37.4	37.7	226.3	55.2
	순매수	-257.3	225.3	27.8	107.1	-16.3	-53.8	24.3	-9.4	-12.1	4.3
	12 월 누계	-2,037.9	2,610.5	-450.9	98.7	60.2	-401.8	14.5	-83.5	134.7	-121.7
	12 년 누계	-14,305.9	15,743.3	3,468.6	1,658.2	2,717.5	-5,246.3	97.5	415.3	3,394.4	-4,906.0
코스닥	매수	1,325.2	61.9	67.5	15.2	6.2	24.5	1.6	3.2	14.7	18.1
	매도	1,309.4	58.8	89.1	12.3	13.1	37.1	3.9	4.3	16.3	15.4
	순매수	15.8	3.1	-21.6	2.9	-6.9	-12.6	-2.2	-1.1	-1.6	2.7
	12 월 누계	114.7	-30.8	-110.8	-9.6	-0.8	-102.2	-24.0	-6.9	21.6	26.9
	12 년 누계	1,312.1	11.9	-512.2	37.7	79.2	-649.8	-295.8	-40.7	339.4	-811.8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PI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통신업	11,689	전기,전자	-37,572	철강및금속	14,515	서비스업	-28,835
화학	10,790	서비스업	-20,189	화학	11,429	운수장비	-22,232
금융업	9,295	건설업	-10,488	증권	7,138	보험	-9,261
LG화학	10,590	삼성전자	-35,082	SK하이닉스	9,728	두산	-15,189
현대차	10,420	현대모비스	-12,149	현대제철	9,014	기아차	-12,174
한국전력	8,155	현대건설	-9,891	SK텔레콤	6,980	삼성전자	-12,055
SK텔레콤	7,395	엔씨소프트	-9,452	호남석유	5,682	현대차	-11,058
현대중공업	6,692	두산	-7,878	우리투자증권	4,752	현대모비스	-7,017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금융업	2,665	전기,전자	-4,109	통신업	10,170	전기,전자	-16,375
서비스업	1,839	통신업	-2,136	금융업	7,338	전기가스업	-8,337
은행	440	화학	-1,847	철강및금속	3,703	운수장비	-6,238
두산	3,345	삼성전자	-1,807	KT	8,042	한국전력	-10,165
KB금융	1,795	LG화학	-1,480	KODEX 200	3,333	삼성전자	-7,055
우리금융	739	SK텔레콤	-1,402	POSCO	3,260	기아차	-6,124
엔씨소프트	620	SK하이닉스	-1,341	한진해운	2,847	LG전자	-5,000
효성	603	삼성중공업	-1,257	KODEX 레버리지	2,324	현대건설	-3,993

◆ KOSPI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금융업	33,768	전기,전자	-37,567	전기,전자	67,392	제조업	-7,272
철강및금속	29,328	서비스업	-22,134	화학	59,957	통신업	-3,235
통신업	27,595	유통업	-16,451	서비스업	19,011	비금속광물	-91
POSCO	17,725	삼성전자	-33,687	삼성전자	38,503	케이피케미칼	-12,363
현대차	16,632	기아차	-23,389	LG화학	31,943	POSCO	-11,380
케이피케미칼	16,269	현대모비스	-17,668	호남석유	21,050	SK	-10,377
신한지주	14,687	두산	-15,653	SK이노베이션	17,141	현대차	-10,299
SK텔레콤	13,201	호남석유	-12,740	삼성전기	11,895	KT&G	-7,298
현대중공업	11,514	대한항공	-12,665	삼성물산	11,132	SK텔레콤	-6,824
한진해운	11,354	LG전자	-10,112	LG디스플레이	9,318	삼성화재	-6,057
KT	10,332	엔씨소프트	-8,489	기아차	9,103	삼성중공업	-5,901
금호석유	10,019	현대건설	-7,744	한국전력	8,447	신한지주	-4,683
우리금융	10,001	삼성화재	-7,590	KT	8,251	LG유플러스	-4,662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DAQ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순 매 수		순 매 도	
화학	4,632	디지털컨텐츠	-2,704
사업지원	1,380	전문기술	-2,385
제약	967	IT부품	-2,269
에이블씨앤씨	4,000	컴투스	-2,117
하나투어	1,485	CJ E&M	-1,807
CJ오쇼핑	887	KG이니시스	-1,776
코오롱생명과학	839	게임빌	-1,659
다음	795	멜파스	-1,114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화학	3,294	오락,문화	-1,876
IT부품	2,927	소프트웨어	-773
제약	1,770	디지털컨텐츠	-625
에이블씨앤씨	3,779	파라다이스	-1,876
셀트리온	1,618	컴투스	-1,144
인터플렉스	1,287	한글과컴퓨터	-780
CJ오쇼핑	1,141	솔브레인	-448
에스맥	977	루멘스	-423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순 매 수		순 매 도	
소매	347	반도체	-656
IT부품	289	오락,문화	-613
운송장비,부품	203	디지털컨텐츠	-580
비에이치	818	파라다이스	-587
서부T&D	347	서울반도체	-586
성우하이텍	176	유아아이디	-319
아트라스BX	101	게임빌	-317
이라이콤	100	컴투스	-263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화학	923	반도체	-2,024
금속	687	IT부품	-1,729
방송서비스	298	인터넷	-1,061
에이블씨앤씨	794	루멘스	-1,206
CJ오쇼핑	424	다음	-772
포스코엔텍	344	서울반도체	-744
에스엠	277	CJ E&M	-735
나노신소재	271	인터플렉스	-616

◆ KOSDAQ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화학	8,143	디지털컨텐츠	-5,561
방송서비스	2,770	반도체	-3,597
제약	2,759	소프트웨어	-3,517
에이블씨앤씨	8,476	컴투스	-4,938
CJ오쇼핑	2,289	KG이니시스	-3,244
셀트리온	1,808	CJ E&M	-2,929
위메이드	1,653	파라다이스	-2,712
하나투어	1,336	게임빌	-2,274
인터플렉스	1,206	루멘스	-1,587
비에이치	1,061	씨젠	-1,159
에스엠	962	에스에프에이	-1,047
성우하이텍	820	멜파스	-1,019
KH바텍	768	평화정공	-935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제약	4,948	화학	-2,531
오락,문화	2,920	반도체	-2,278
IT부품	2,067	금속	-1,330
셀트리온	5,226	EG	-1,703
파라다이스	2,812	성광벤드	-1,658
멜파스	1,843	서울반도체	-1,368
플렉스컴	1,008	실리콘웍스	-1,275
유진테크	800	태양기전	-1,085
성우하이텍	725	인터플렉스	-963
태웅	607	에이블씨앤씨	-782
옵트론텍	431	하나투어	-780
인탑스	426	매일유업	-582
신화인터텍	372	태광	-542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수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기	관	외	국 인
TIGER 삼성그룹	19 일	삼성전기	15 일
삼성증권	16 일	현대건설	14 일
대우조선해양	13 일	넥센타이어	14 일
대우증권	12 일	삼성SDI	14 일
세종공업	11 일	하나금융지주	14 일
우리투자증권	10 일	롯데제과	13 일
KODEX 조선	10 일	동부제철	13 일
TIGER 현대차그룹+	10 일	LG화학	13 일

KOSDAQ			
기	관	외	국 인
매일유업	6 일	현진소재	11 일
덕산하이메탈	6 일	엘앤에프	11 일
동국산업	5 일	KCC건설	9 일
시그네틱스	5 일	신화인터텍	9 일
파라다이스	4 일	메가스터디	9 일
한국토지신탁	4 일	태웅	8 일
멜파스	4 일	SK브로드밴드	7 일
포스코엠텍	3 일	케이디씨	6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수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기	관	외	국 인
POSCO	110,544	삼성전자	183,856
KODEX 레버리지	100,084	KODEX 200	181,348
신한지주	70,710	LG화학	83,582
현대차	60,970	삼성전기	54,598
OCI	51,122	호남석유	52,923
대우조선해양	44,934	KODEX 레버리지	50,447
SK텔레콤	33,587	LG전자	47,226
현대중공업	33,049	현대건설	43,756

KOSDAQ			
기	관	외	국 인
서부T&D	25,987	에이블씨엔씨	9,731
에이블씨엔씨	9,591	셀트리온	8,559
덕산하이메탈	7,145	에스에프에이	4,712
에스엠	6,091	멜파스	3,634
위메이드	5,348	신화인터텍	3,587
파라다이스	4,130	메가스터디	2,617
인지디스플레이	4,079	게임빌	2,478
코오롱생명과학	4,039	GS홈쇼핑	2,443

◆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화학		24,403	59,957 84,360
금융업		33,768	1,959 35,727
철강및금속		29,328	5,890 35,218
LG화학		2,851	31,943 34,794
KT		10,332	8,251 18,583
현대제철		8,392	7,419 15,811
KB금융		8,100	6,858 14,958
대우조선해양		7,505	5,223 12,728
LG디스플레이		3,216	9,318 12,534
한국전력		1,769	8,447 10,216
S-Oil		5,147	4,197 9,344
LG패션		5,970	2,668 8,638
KODEX 레버리지		4,736	3,408 8,144

KOSDAQ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제약		2,759	4,948 7,707
IT부품		677	2,067 2,744
통신장비		745	21 767
셀트리온		1,808	5,226 7,034
CJ오쇼핑		2,289	42 2,331
위메이드		1,653	76 1,729
성우하이텍		820	725 1,544
에스엠		962	237 1,199
KH바텍		768	309 1,077
포스코엠텍		479	314 793
메디톡스		558	114 672
덕산하이메탈		398	261 658
모두투어		550	67 617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도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KOSDAQ			
기 관		외 국 인		기 관		외 국 인	
금호전기	20 일	케이피케미칼	9 일	우주일렉트로	9 일	태광	9 일
현대글로벌비스	16 일	KODEX 철강	8 일	미래나노텍	8 일	파라다이스	8 일
STX조선해양	13 일	SK텔레콤	7 일	KCC건설	6 일	에스엠	6 일
KOSEF 인버스	13 일	대한제강	7 일	비에이치아이	6 일	매일유업	5 일
대덕GDS	12 일	아세아시멘트	6 일	루멘스	5 일	SDN	5 일
NHN	9 일	POSCO	5 일	씨애헤이인터	5 일	다음	3 일
빙그레	8 일	우리투자증권	5 일	인터플렉스	5 일	EG	3 일
녹십자	8 일	퍼시스	5 일	셀트리온	5 일	테라리소스	3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도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KOSDAQ			
기 관		외 국 인		기 관		외 국 인	
KODEX 200	-151,040	POSCO	-55,960	인터플렉스	-10,445	파라다이스	-8,796
LG전자	-144,487	LG디스플레이	-38,402	컴투스	-5,400	성광벤드	-8,523
기아차	-139,430	OCI	-29,293	CJ E&M	-5,213	EG	-5,410
고려아연	-97,304	SK텔레콤	-23,638	이엘케이	-4,213	인터플렉스	-4,976
NHN	-85,730	현대차	-22,211	루멘스	-4,108	다음	-4,251
삼성전기	-60,024	삼성전자우	-19,580	옵트론텍	-3,795	에스엠	-4,022
KODEX 인버스	-58,648	케이피케미칼	-16,749	씨젠	-3,508	태광	-2,691
현대모비스	-37,580	CJ CGV	-9,299	로엔	-3,208	컴투스	-2,676

◆ 기관/외인 동반 순매도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KOSDAQ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비금속광물	-122	-91	-213	디지털컨텐츠	-5,561	-1,073	-6,634
-	-	-	-	반도체	-3,597	-2,278	-5,875
-	-	-	-	전문기술	-3,410	-505	-3,915
대한항공	-12,665	-2,271	-14,936	컴투스	-4,938	-492	-5,430
삼성화재	-7,590	-6,057	-13,647	CJ E&M	-2,929	-478	-3,407
엔씨소프트	-8,489	-701	-9,190	EG	-375	-1,703	-2,078
SBS미디어홀딩스	-7,088	-158	-7,246	루멘스	-1,587	-443	-2,030
호텔신라	-6,415	-508	-6,922	서울반도체	-582	-1,368	-1,950
아이마켓코리아	-3,943	-212	-4,155	실리콘웍스	-509	-1,275	-1,784
LG	-622	-2,776	-3,398	씨젠	-1,159	-222	-1,381
두산중공업	-2,524	-22	-2,546	에스에프에이	-1,047	-66	-1,114
대상	-475	-1,188	-1,663	시그네틱스	-674	-108	-782
영원무역	-634	-909	-1,543	로엔	-587	-87	-674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삼성전자	25	37,985
LG디스플레이	361	11,150
한국전력	386	11,046
기아차	187	11,027
LG전자	146	10,564
호남석유	28	6,810
SK하이닉스	148	3,936
현대차	15	3,265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에이블씨엔씨	9	708
멜파스	27	688
파라다이스	38	656
다음	6	546
코오롱생명과학	6	455
인터플렉스	8	445
서울반도체	17	400
씨젠	6	374

◆ 대차잔고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삼성전자	2,796	4,203,117
LG전자	41,195	2,970,129
POSCO	7,864	2,775,953
OCI	9,322	1,538,185
현대차	4,464	1,004,391
SK하이닉스	27,202	724,943
NHN	3,156	716,491
오리온	580	593,501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셀트리온	26,041	736,947
서울반도체	5,247	125,933
덕산하이메탈	2,682	56,196
에스엠	1,414	55,345
게임빌	412	44,693
에이블씨엔씨	551	43,882
다음	471	41,751
파라다이스	2,066	35,837

◆ 대차잔고 5일간 누적 순증/감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천주)

KOSPI			
순 증		순 감	
의약품	180	화학	-5,252
의료정밀	107	전기,전자	-4,950
비금속광물	79	금융업	-4,335
KODEX 200	856	LG전자	-3,538
한솔CSN	552	한화생명	-2,600
KEC	549	KB금융	-2,171
안국약품	520	외환은행	-1,653
SK하이닉스	511	LG디스플레이	-1,568
한솔테크닉스	293	대우조선해양	-1,559
두산인프라코어	285	한화케미칼	-1,442
하나금융지주	285	KT	-1,433
SG세계물산	270	동국제강	-1,232
한진중공업홀딩스	205	기업은행	-1,216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순 증		순 감	
소프트웨어	408	제약	-3,001
IT부품	398	통신서비스	-963
섬유,의류	256	반도체	-608
안국약품	520	셀트리온	-3,754
대아티아이	329	SK브로드밴드	-955
서한	270	서울반도체	-336
인프라웨어	203	인터파크	-239
유비케어	187	미래나노텍	-231
지엔코	167	아가방컴퍼니	-179
엘비세미콘	151	루멘스	-174
SM C&C	150	메가스터디	-160
옵트론텍	150	KG모빌리언스	-153
캠시스	122	KG이니시스	-139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거래 주체별 매매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12/12(수)	12/13(목)	12/14(금)	12/17(월)	12/18(화)
외국인	15,743.3	2,610.5	1,215.1	205.9	532.9	76.2	171.7	225.3
기관계	3,468.6	-450.9	-149.5	55.9	-23.9	-84.0	-127.4	27.8
(투신)	-5,246.3	-401.8	-266.5	-28.2	22.4	-120.6	-85.6	-53.8
(연기금)	3,574.6	185.8	-124.7	-18.1	-5.5	-30.5	-68.5	-2.3
(은행)	415.3	-83.5	-59.6	-13.8	-12.6	-4.1	-19.7	-9.4
(보험)	2,717.5	60.2	67.2	-11.8	176.8	-22.5	-56.5	-16.3
개인	-14,305.9	-2,037.9	-999.1	-244.7	-485.9	15.0	-26.3	-257.3
기타	-4,906.0	-121.7	-66.4	-17.1	-23.1	-7.1	-18.1	4.3

주: KOSDAQ 제외

◆ 증시 자금 동향

(단위: p, 십억원,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12/11(화)	12/12(수)	12/13(목)	12/14(금)	12/17(월)
KOSPI	1,682.77	2,051.00	1,825.74	1,964.62	1,975.44	2,002.77	1,995.04	1,983.07
고객예탁금	12072.0	14068.5	17680.2	17044.6	17300.7	17717.4	17222.5	17220.3
(증감액)	2735.7	1996.5	3611.7	147.2	256.1	416.7	-494.9	-2.2
(회전율)	52.6	51.5	34.2	36.2	35.7	41.7	33.4	33.0
실질예탁금 증감	-292.5	-3502.6	3775.5	-123.5	252.9	166.7	-715.5	-444.8
신용잔고	4359.5	5938.3	4476.3	4135.6	4125.6	4104.8	4085.2	4054.6
미수금	240.2	192.3	187.7	125.1	114.2	133.8	114.3	93.1

주1: 실질예탁금 증감=고객예탁금증분+개인순매수-(신용증분+미수금 증분) / 고객 예탁금 회전율=(KOSPI, KOSDAQ 거래대금/고객예탁금)*100

주2: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KOSCOM

◆ 국내 수익증권 유출입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설정 잔액	연간 누계	월간 누계	12/11(화)	12/12(수)	12/13(목)	12/14(금)	12/17(월)
전체 주식형	95,137	-7,790	-976	-96	-168	-207	-313	334
(ex. ETF)		-10,704	-1,170	-52	-123	-146	-213	-200
국내 주식형	68,795	-4,218	-717	-75	-143	-174	-302	362
(ex. ETF)		-7,128	-907	-31	-97	-113	-202	-169
해외 주식형	26,342	-3,572	-259	-21	-26	-33	-11	-28
(ex. ETF)		-3,576	-264	-21	-26	-33	-11	-31
주식 혼합형	10,136	-1,633	-148	-8	-9	-19	-17	-25
채권 혼합형	19,362	1,343	-17	43	-11	-13	-16	39
채권형	46,922	2,352	263	7	35	-24	-254	208
MMF	72,438	17,564	3,401	-896	-44	1,618	1,939	-501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금융투자협회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주요 이머징마켓 외국인 매매 동향

(단위: 백만달러)

국 가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12/12(수)	12/13(목)	12/14(금)	12/17(월)	12/18(화)
한 국	14,165	2,423	2,894	192	496	74	160	210
대 만	4,602	1,390	1,762	342	153	-12	-339	-
인 도	22,353	2,251	1,617	556	243	115	-	-
인도네시아	1,612	-88	703	12	67	-1	7	-
태국	2,202	453	618	143	32	27	42	-
남아공	-487	549	374	105	152	-27	-	-
필리핀	2,424	260	143	-7	-3	146	6	-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주요 금리, 환율 및 원자재 가격

(단위: %, 원, 엔, p, 달러)

구 분	2011년	12/11(화)	12/12(수)	12/13(목)	12/14(금)	12/17(월)	12/18(화)
회사채 (AA-)	4.21	3.27	3.27	3.30	3.31	3.31	3.33
회사채 (BBB-)	10.01	8.76	8.76	8.79	8.80	8.81	8.83
국고채 (3년)	3.34	2.83	2.83	2.86	2.87	2.88	2.90
국고채 (5년)	3.46	2.97	2.96	2.99	3.00	3.02	3.05
국고채 (10년)	3.79	3.09	3.10	3.14	3.15	3.16	3.19
미 국채 (10년)	1.88	1.65	1.70	1.73	1.70	1.77	-
일 국채 (10년)	0.99	0.71	0.70	0.73	0.74	0.74	-
원/달러	1,151.80	1,076.70	1,075.00	1,073.00	1,074.00	1,072.50	1,072.80
원/엔	1,492.00	1,308.00	1,301.00	1,285.00	1,284.00	1,278.00	1,279.00
엔/달러	77.24	82.37	82.64	83.55	83.70	83.94	83.90
달러/유로	1.29	1.29	1.29	1.30	1.31	1.31	1.31
DDR3 1Gb (1333MHz)	0.64	0.64	0.64	0.65	0.66	0.65	-
NAND Flash 16Gb (MLC)	2.81	1.86	1.86	1.86	1.88	1.88	-
CRB 지수	305.30	293.84	295.19	292.70	294.89	295.54	-
LME 지수	3,306.0	3,514.9	3,533.6	3,514.7	3,520.2	3,506.3	-
BDI	1,738	900	826	799	784	766	-
유가 (WTI, 달러/배럴)	98.83	85.79	86.77	85.89	86.73	87.20	-
금 (달러/온스)	1,566.80	1,709.60	1,717.90	1,696.80	1,697.00	1,698.20	-

자료: Bloomberg, KOSCOM, 한국투자

KOSPI200 선물 옵션 시장 동향

◆ 선물시장 지표

(단위: P, 계약)

	기초자산 KOSPI200	최근월물 1303월물	베이스스			거래량	미결제약정	
			이론	마감	평균			증감
12월 12일	261.67	261.80	-0.71	0.33	0.32	13,074	79,052	25,082
12월 13일	265.79	264.25	-0.70	-0.89	0.12	56,058	94,949	15,897
12월 14일	264.56	264.50	-0.73	-0.06	0.16	149,199	100,457	5,508
12월 17일	262.76	263.30	-0.81	0.54	0.65	138,853	102,672	2,215
12월 18일	264.23	264.70	-0.80	0.47	0.75	159,380	104,675	2,003

◆ 지수선물시장 투자주체별 매매동향

(단위: 계약)

	외국인	개인	기관종합					
			증권	투신	은행	보험	기금	
12월 12일	5,105	-1,091	-4,050	-1,803	-739	114	-151	0
12월 13일	1,833	2,735	-4,417	-2,197	-744	123	21	0
12월 14일	2,110	-571	-730	1,954	-2,183	-20	-42	0
12월 17일	-1,947	1,529	500	948	-244	22	-45	0
12월 18일	2,001	-183	-2,006	-1,698	-204	17	-38	3
누적포지션	2,164	775	-2,236	1,204	-2,631	19	-125	-706

◆ 지수선물 프로그램 매매동향

(단위: 십억 원)

	프로그램 전체			비차익거래			차익거래			차익거래잔고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12월 12일	732	1,161	428	715	960	245	18	200	183	6,005	10,503
12월 13일	1,630	2,543	913	1,045	1,720	674	585	823	238	5,860	10,598
12월 14일	682	1,044	362	644	827	183	38	217	179	5,833	10,681
12월 17일	641	1,102	461	595	829	235	47	273	226	5,825	10,865
12월 18일	791	1,238	447	758	954	197	33	284	2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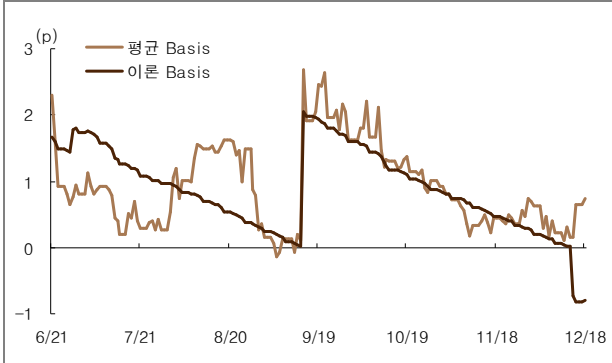
◆ 옵션시장 거래동향

(단위: 변동성(%)/가격(P))

콜옵션				행사가격	풋옵션			
변동성	미결제증감	거래량	현재가		현재가	거래량	미결제증감	변동성
14.54	1,661	76,755	0.43	275.00	11.85	110	-20	5.00
14.58	625	94,662	0.72	272.50	9.60	85	39	5.00
14.81	2,227	145,587	1.19	270.00	7.65	909	174	5.00
15.03	740	104,699	1.85	267.50	5.80	3,106	313	7.88
15.55	1,938	96,116	2.81	265.00	4.35	10,595	1,436	10.08
16.01	598	15,972	4.00	262.50	3.05	14,241	992	10.85
17.14	87	6,524	5.60	260.00	2.15	97,922	2,049	11.82
18.31	190	2,213	7.40	257.50	1.43	91,594	-544	12.39
19.70	-24	452	9.40	255.00	0.93	111,957	4,555	12.94
20.79	-175	594	11.45	252.50	0.61	78,881	3,183	13.60
23.57	50	330	13.90	250.00	0.42	63,770	1,348	14.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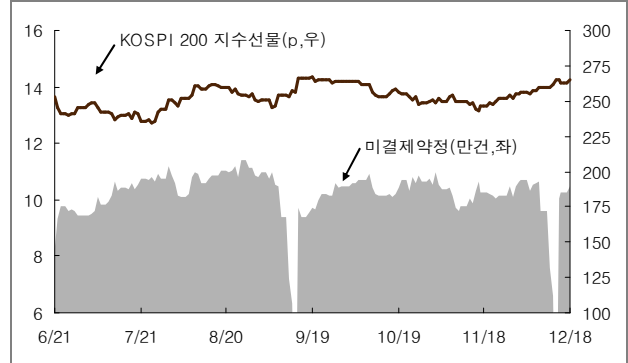
■ 주요 지표

이론 Basis & 평균 Ba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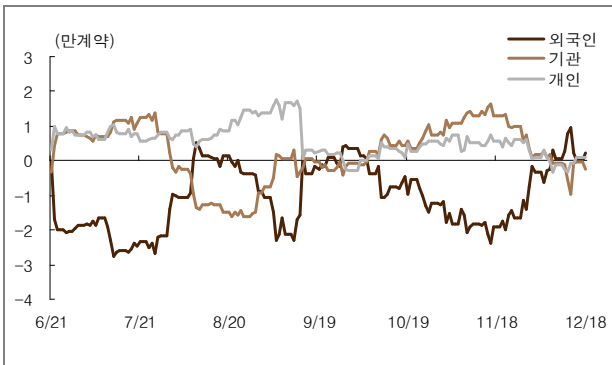
- 평균 Basis: 0.75 (전 거래일 대비 0.10 상승)
- 이론 Basis: -0.80

선물 가격 & 미결제 약정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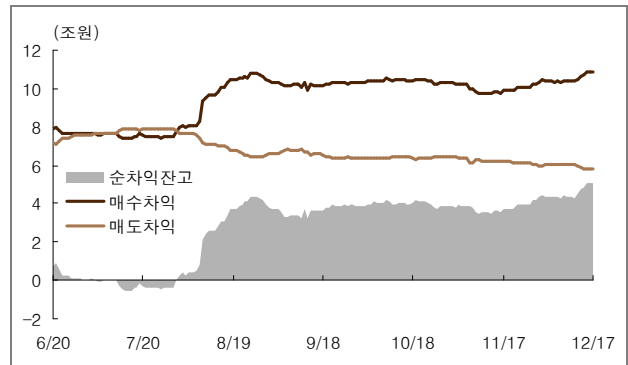
- 미결제약정: 전 거래일 대비 2,003 계약 증가한 104,675 계약
- 선물가격(264.70): 전 거래일 대비 1.40p 상승

투자주체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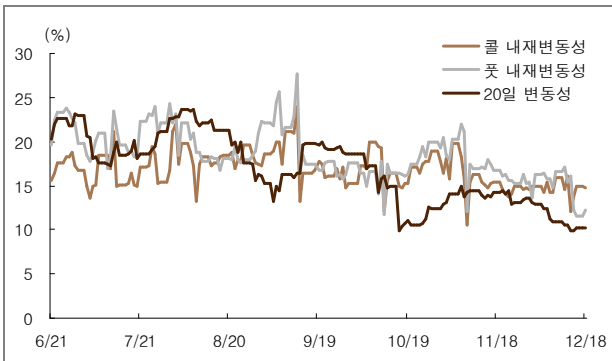
- 외국인: 2,001 계약 순매수
- 기관: 2,009 계약 순매도 / 개인: 183 계약 순매도

차익거래 잔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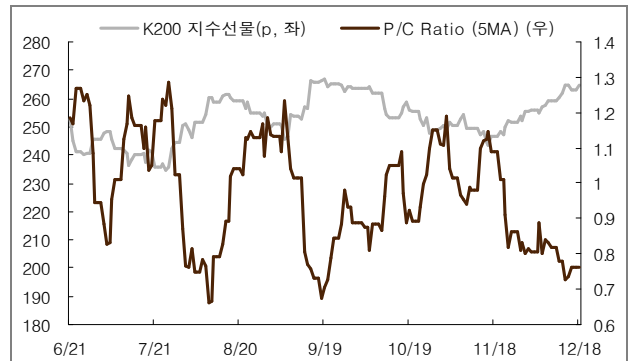
- 차익거래: 2,504 억원 순매수
- 비차익거래: 1,965 억원 순매수

KOSPI200 옵션 변동성 추이



- 대표 내재 변동성: 콜 14.7% / 풋 12.2% 기록
- 20일 역사적 변동성: 10.21% 기록

Put/Call Ratio



- 금액 기준 P/C Ratio(5MA): 0.76 기록

*** 데이터 불연속성은 선물 12년 12월물이 최근월물로 거래된 데 따른 것임

한 눈에 보는 증시 일정

월	화	수	목	금
10	11	12	13	14
韓> 11월 생산자물가지수 YoY (-0.2%, n/a, 0.2%) 유럽> 12월 섀넥스 투자자대지수 (-16.8, -16.9, -18.8) 中> (12/9) 11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2.0%, 2.1%, 1.7%) (12/9) 11월 생산자물가지수 YoY (-2.2%, -2.0%, -2.8%) (12/9) 11월 산업생산 YoY (10.1%, 9.8%, 9.6%) (12/9) 11월 소매판매 YoY (14.9%, 14.6%, 14.5%) 11월 무역수지 (\$19.63B, \$26.85B, \$31.99B) 11월 수출 YoY (2.9%, 9.0%, 11.6%) 11월 수입 YoY (0.0%, 2.0%, 2.4%) 日> 10월 경상수지 YoY (-29.4%, -59.0%, -68.7%)	美> 11월 NFIB 소기업 낙관지수 (87.5, 92.5, 93.1) 10월 무역수지 (-\$42.2B, -\$42.7B, -\$41.5B) 中> 11월 신규 위안 대출 (522.9B, 550.0B, 505.2B) 11월 통화공급 M2 YoY (13.9%, 14.1%, 14.1%) 日> 11월 통화공급 M2 YoY (2.1%, 2.3%, 2.3%)	韓> 11월 실업률 (3.0%, 3.1%, 3.0%) 10월 통화공급 M2 YoY (0.2%, n/a, 0.1%) 美> 주간 MBA 주택융자신청지수 (6.2%, n/a, 4.5%) 11월 수입물가지수 YoY (-1.6%, -1.0%, 0.4%) 11월 월간 재정수지 (-\$172.1B, -\$150.0B, -\$137.3B) FOMC 금리 결정 (0.25%, 0.25%, 0.25%) 유럽> 10월 유로권 산업생산 YoY (-3.6%, -2.4%, -2.3%) EU 은행감독기구 설립 합의	韓> 금통위 금리결정 (2.75%, 2.75%, 2.75%)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美>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34.3만, 36.0만, 37.0만) 11월 생산자물가지수 YoY (1.5%, 1.8%, 2.3%) 11월 소매판매액지수 MoM (0.3%, 0.5%, -0.3%) 10월 기업재고 MoM (0.4%, 0.4%, 0.7%) 유럽> EU 정상 회담 그리스 차기 구제금융 지급 합의	韓> 11월 수출물가지수 YoY (-5.5%, n/a, -5.2%) 11월 수입물가지수 YoY (-7.6%, n/a, -6.4%) 美> 11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1.8%, 1.9%, 2.2%) 11월 산업생산 YoY (1.1%, 0.3%, -0.4%) 하원 회기 마감 유럽> 3분기 유로권 고용 YoY (n/a, n/a, -0.6%) 11월 유로권 CPI YoY (n/a, 2.2%, 2.2%) 中> HSBC 플래시 PMI 제조업 (50.9, 50.8, 50.5)
17	18	19	20	21
美> 12월 뉴욕주 제조업지수 (-8.10, -1.00, -5.22) 日> (12/16) 조기 총선 실시	美> 12월 NAHB 주택시장지수 (n/a, 47, 46) 中> 11월 실질 FDI (-5.4%, -3.1%, -0.2%)	韓> 제18대 대통령선거 美> 주간 MBA 주택융자신청지수 (n/a, n/a, 6.2%) 11월 주택건설착공 MoM (n/a, -2.6%, 3.6%) 11월 건축허가 MoM (n/a, 0.8%, -2.7%) 유럽> 10월 유로권 경상수지 SA (n/a, n/a, 0.8B)	美>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n/a, 36.0만, 34.3만) 12월 필라델피아 연준지수 (n/a, -3.0, -10.7) 10월 주택가격지수 MoM (n/a, 0.3%, 0.2%) 11월 기존주택매매 MoM (n/a, 2.3%, 2.1%) 11월 경기선행지수 MoM (n/a, -0.2%, 0.2%) 日> BOJ 정책금리 결정 (n/a, 0.10%, 0.10%)	美> 11월 개인소득 MoM (n/a, 0.3%, 0.0%) 11월 개인소비지수 MoM (n/a, 0.4%, -0.2%) 의회 회기 마감
24	25	26	27	28
美> 11월 내구재 주문 MoM		韓> 11월 할인점 매출 YoY (미확정) (n/a, n/a, -6.6%) 11월 백화점 매출 YoY (미확정) (n/a, n/a, -0.4%) 12월 소비자대지수 美> 주간 MBA 주택융자신청지수 10월 S&P/CS 주택가격지수 MoM	韓> 1월 BSI 제조업 1월 BSI 비제조업 美>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12월 소비자 기대지수 11월 신규주택매매 MoM 中> 11월 선행지수 (미확정)	韓> 11월 경상수지 11월 산업생산 YoY 11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MoM 美> 11월 미결주택매매 MoM 日> 11월 실업률 11월 국내 CPI YoY 11월 산업생산 YoY 속보치

☞ 주: 괄호안은(발표치, 블룸버그 예상치, 이전치) 순이며 예상치는 변동 가능. 이전치는 수정 값 미반영분
 발표일자는 한국시간 기준 (단, 오전6시 이전에 발표되는 지표는 전일 기입)
 실적발표일은 Bloomberg, 기업 공시 기준으로 작성 (변동 가능, *표시는 한국시간 당일 아침)